

불교TV 새 경영진 구성

부채해결 조건...실무이사 6명 영입키로

사장에 허문도씨

경영악화로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던 불교TV가 새 사장 선임으로 한기다 희망을 갖게 됐다. 불교TV 이사회는 22일 마포 석촌사에서 제2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허문도씨(80·전 통일원장관)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허씨는 "부채없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불교TV가 올바른 발판을 전달할 수 있는 수레바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대표이사 신하스님을 비롯 31명의 이사 가운데 18명(위임 9명 포함)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허씨를 5월10일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추대를 거쳐 당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대표

이사로 선임키로 결의했다. 또 허씨가 추천한 실직적 재경 지원자인 정계식씨(경국판매 대표이사)와 강순이씨(실업인), 신하스님이 추천한 이수덕씨(동진메트로닉 대표), 종단 추천이사 2명 등 6명(대표이사 포함)을 실무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이로써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위기에 놓여 있던 불교TV는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허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배경에는 재력가로 알려진 정계식(鄭桂植)씨의 후원이 있다. 정씨는 불교TV의 경영진과 몇 차례 가진 면담에서 자신은 부채 해결 및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허씨의 사장 선임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씨는 한 불교TV 경영진에 부채해결에 필요한 70억원과 운영자금 10~30억원을 단계적으로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최대주주인 태웅스님도 새 경영진에 자신의 의견권 위임을 사를 전달했다.

불교TV는 5월10일 새 대표이사 취임전까지 경영 인수팀을 구성해 새 경영진에게 경영 현황 보고를 포함한 인수 연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5월 10일 총지사에서 임시주주총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opia.com)

"종단차원 불교TV 경영 참여"

조계종 bfn특위 결의

조계종 bfn특위(위원장 장효성)는 21일 4차 회의를 열고 불교TV 경영에 종단이 주체적으로 참여키로 결의했다. 또 이

날 회의에서는 불교TV 경영 실무 이사에 종단이 추천한 2명의 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22일 열린 불교TV 이사회와 새 대표이사 선임건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성운 기자

'건축법 8조 4항' 적극대처

조계종-문화부, 재개정·대체입법 요구

'도시미관·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축법 8조4항의 폐지와 관련, 조계종총무원이 적극 대처에 나섰다.

총무원은 12일 청와대 경제수석과 교육문화수석,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정각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건축법 8조4항을 삭제한 조치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하며, 이의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이에 앞서 대적회의를 열고 종단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정부 및 국회에 건축법의 재개정 및 건축사법보정법의 경내지 확대, 문화재보호법의 강화 등 대체입법을 요구키로 했다. 또 피해 및 피해예상 사례 수집에 나섰

다. <관련기사 3면>

총무원의 재개정 요청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16일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사찰 및 문화재 주변의 환경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삭제된 건축법 8조 4항이 존치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공부는 이같은 조치를 총무원에 알려왔다. 문화관광부 외의 정부 부처 및 국회에서는 23일 현재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보호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 최소화 △부조리 소지를 차단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해 4월 건축법 개정안을 입안. 관련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2월 8일 공포했으며 5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집시다

농촌 포교 부재

강원도 춘천군 내면의 한 마을. 해마다 농사를 시작할 즈음인 4월이면 이 마을에 사는 김장호불자는 마을 행사에 나가는다. 마느나로 고민에 빠진다. 이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는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음식을 나누는 행사가 열린다. 매년 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현력" 내는 것이다. 교회의 이같은 노력 덕분인지, 이 마을 주민의 70% 정도가 개신교 신자다. 어린이의 경우는 포교집단과 어울릴 수밖에 없어 원하지 않더라도 개신교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든다.

김씨가 도시생활을 접고 이곳에 정착한 것은 지난 97년. 농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3년째다. 마을 사람들 도움없이 살아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곳도 찾아가 귀농남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마을 행사에 가기가 꺼려진다. 교회에 꼭 나오라는 애 때문이다.

"농촌에도 사찰이 많은데 이 교회처럼 행사를 하는 곳은 드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귀농이 늘어나면서 육아와 어린이보육기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사찰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씨의 바람이 아닐 것이다. 개신교는 오래 전부터 농촌선교를 위해 고단에서 지원금을 주고, 후원회를 결성해 돕고 있다. 이러니 농촌지역의 불교신자들은 종교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모범적으로 농촌포교를 일구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영주 부석사, 봉화 청량사 같은 경우는 꾸준한 신도관리와 포교로 방생법회에 마을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한다.

몇 년 전부터 불교귀농학교와 불교도농공동체 건설 운동이 시작되며 그나마 농촌포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씩씩 돌아오고 있다.

농촌포교는 단순히 신도늘리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농촌포교는 농촌살아가기, 이는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통해 땅과 사람을 살리는 불사이다.

정성운 기자

사면안등 처리할듯

5월11일 조계종총회

조계종중앙총회(의장 법등)는 23일 총회사무처에서 의장단과 총무부과위원, 각 상임부과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140회 임시중앙총회를 5월 11일 하루 동안의 회기로 열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무원장이 요청한 시민동의인과 지능직 총회의원 선출위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봉정사의 영어왕

21일 안동 봉정사를 찾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인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과 법고 시연등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21일 안동 봉정사를 찾은 엘리자베스여왕은 봉정사 극락전과 만세루를 돌아보고 법고타종과 법고시연을 감상한 후 고즈넉한 신사의 정취와 경건한 종교의식에 매료돼 "너무나 아름답고 인상적이다"며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관련기사 2면>

안동=고명배 기자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 한국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인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과 법고 시연등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21일 안동 봉정사를 찾은 엘리자베스여왕은 봉정사 극락전과 만세루를 돌아보고 법고타종과 법고시연을 감상한 후 고즈넉한 신사의 정취와 경건한 종교의식에 매료돼 "너무나 아름답고 인상적이다"며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관련기사 2면>

안동=고명배 기자

조계종 '달마넷' 서비스 시작

40여 사찰·신행단체 홈페이지 개설

조계종총무원(위원장 고신)은 22일부터 불교종합정보망 달마넷의 인터넷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달마넷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동화사 선운사 등 40여 사찰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3백명의 불교인물, 1천여개의 기본적인 불교용어, 교리, 경전 등의 자료가 올라 있다.

주소는 www.dharmanet.net. 조계종은 올해 말까지 5백여

전통사찰 농지취득 가능

내달부터...농림부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빠르면 5월부터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이 가능해진다.

농림부는 시·군·구·읍·면·동 등의 용도로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을 추가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에 6개월이 걸리는 28일 이후 법적 심의를 거치면 농림부장관의 공포로 개정안이 확정된다.

그러나 농림부는 시행규칙에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 범위를 당해 사찰의 시·군·읍·면 또는 이에 연합한 시·군·읍·면으로 한정했다. 또 조계종이 요구한 농지 취득 절차 간소화와 사찰주지 소유 농지의 사찰소유로 명의 변경은 형평성 형용과 농지법 외의 사항이라며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성운 기자

소적새마을에 '자비의 등'을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적새마을. 이곳은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적새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서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적새마을의 보금자리 건설발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하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적새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등심: 1인당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1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6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체국 011809-0332390
 ● 농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후원해드립니다.

경주 불교예술대전 입장권 할인판매

'99 한국불교예술대전을 후원하고 있는 본사는 독자여러 분에게 정가의 15% 할인된 입장권을 배포하고 있으나, 많은 분을 바랍니다.

입장료: 1인당 어른 5,000원, 청소년(중·고생) 3,000원, 어린이(14세 이상) 1,000원
 문의 및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opia.com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입니다.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리적인 힘에 맞겨지거나 장대 속에서도 걸고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층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볼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루어진 아간 접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문양으로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처 : 불·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택배 발송
 ※ 촛대, 등걸이, 이불표 포함

접등과 조립등은 불·부다피아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접 등

장엄팔각접등은 **풀칠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보관하는 팔각등입니다.**

■ 팔상성도 (八相成道)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여덟가지 주요한 중생제도를 위한 모습

- ① 도솔대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 ② 비림강생상: 물에서 태어나서 탄생하는 모습
- ③ 시문유상: 사방의 문으로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관할하는 모습
- ④ 유상: 유상상을 생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 ⑤ 설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 ⑥ 수회상: 보리수 아래에서 머리를 깎는 모습
- ⑦ 능권상: 능에서 최초로 불법을 설행하는 모습
- ⑧ 생일상: 사가상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

● 규격 : 표준 11cm
 ● 가격 : 2,200원

조립 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흠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 봉축 장엄팔각등

● 만다라 장엄 팔각등

● 규격 : 표준 11cm ● 가격 : 1,340원